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시부터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탁 윤 성(02-2100-2880)	담 당 자	이 정 찬 사무관 (02-2100-2883)	
	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실장 임 상 규(02-3145-7150)		임 형 조 팀장 (02-3145-7160)	
	은행연합회 기획조사부장 이 인 균(02-3705-5247)		박 영 상 팀장 (02-3705-5231)	

제 목 : 한-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「駐韓 아세안 국가 대사 초청 연례 만찬 간담회」 개최

□ 금융위·금감원·은행연합회 공동으로 10.24(월) 은행연합회 뱅커스 클럽에서 「주한 아세안국가* 대사 초청 연례 만찬 간담회」를 개최

*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필리핀, 캄보디아, 미얀마, 말레이시아, 라오스, 브루나이, 태국 10개국

○ 한국측은 임종룡 금융위원장, 진웅섭 금융감독원장, 하영구 은행연합회장, 신성환 금융연구원장, 조영제 금융연수원장, 은행장(12명)*, 정책금융기관 기관장(2명)** 등 참석

* 농협·신한·우리·SC제일·KEB하나·기업·국민·씨티·수협·대구·부산·광주

**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

□ 이번 행사는 한-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작년(15.8.24.)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연례 간담회로서

○ 은행들의 주요 관심지역인 아세안 대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임

□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

- 한-아세안 관계는 경제·안보·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으며, 금융기관들도 아세안 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
- 금융당국도 아세안과 금융협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, 관련규제와 행정관행의 차이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아세안 국가들과 금융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
- 아세안 대사님들께 본국 금융당국과의 가교역할 등 한국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

□ 이에 대해 짜란 짜른수완(SARUN Charoensuwan) 주한 태국 대사*는 한국 은행들이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

○ 오늘 행사가 한-아세안 간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

* ASEAN Committee in Seoul의 의장

□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

○ 한국 금융회사들의 아세안 국가 진출은 현지기업 금융지원, 현지인 고용확대와 함께 현지 금융회사들과의 동반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,

○ 한국 금융회사들이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인프라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 각국 대사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하였음

□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아세안과 한국이 보다 많은 금융협력과 상호진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및 금융인 간의 교류협력 등 금융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